

데스크 시각

‘거시기 선물 주머니’를 받았어요



김미은 문화부장

가끔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혹시 요즘 지하철에서 저를 본 사람이 있다면 좀 우습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으며 혼자 실실 웃다가, 또 갑자기 눈이 별게지며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고는 했으니까요. 어떤 이는 제가 무슨 책을 읽고 있나 궁금했을 듯도 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열심히 읽었던 건 오카노 유이치의 만화 ‘페코로스’,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주인공은 치매에 걸린 80대 어머니와 60대 아들이예요. ‘페코로스’는 작은 양파 품종을 가리키는 말로 저자의 필명이자 별명입니다. 대머리인 그와 잘 어울리지요.

아들의 ‘대머리’는 치매 걸린 어머니의 즐거움이에요. 반들반들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찹쌀 때리고, 때론 꼬집기도 하는데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터집니다.

그는 치매가 진행되는 어머니와의 일상상을 그린 만화를 나가사키 상점가 정보

지에 연재했고 이후 만화는 단행본, 다큐, 드라마, 영화로 제작돼 일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믿고 보는’ 일본어 번역가 양운옥 씨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책을 번역했지만 일본 아마존에서 악평이 단 하나도 없었던 건 이 책뿐이라고 했더군요.

릴레이 책 공유 프로젝트

이 책을 읽게 된 건 ‘거시기 프로젝트’ 취재 덕이었어요. ‘거시기’는 (사)청년문화허브(www.culturehub.kr)가 진행하는 책 공유 프로젝트입니다.

취재 중 받은 ‘거시기 선물 주머니’는 가지고 있기에요. 버리기에요 애매한 무언가를 넣어 이웃과 나누기 위한 ‘공유형 선물 주머니’입니다. ‘봉투’에는 책과 거시기 안나장, 엽서 등이 들어있습니다. 책을 읽고 마음에 들면 다시 봉투에 담아 어딘가에 놓아두면 돼요. 전 만화책과 함께 ‘송’님과 ‘해남’님이 쓴 엽서를 받았어요.

“30대인 제가 우리 부모님의 젊은 날과 노년이 되어 버린 그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치매라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담담하고 유쾌하고 그려냈지만 중간중간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이 들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픈 기억들이 어떤 것이 될지 그려 봅니다.” 책을 읽으면서 ‘해남’님의 말이 그대로 가슴

에 와닿았어요.

2013년 비슷한 이벤트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책 읽는 벤치 IN 광주’로 집 앞 바구니나 벤치 등에 책을 놓아두고 ‘같이 읽는 프로젝트’였죠. 두 달 만에 100회까지 만들어졌는데 당시 저희 집 인근에는 키스해링 작품이 그려진 ‘철가방’을 놓아 둔 벤치가 있었어요. 가끔 살펴보면 쓰레기가 들어 있거나 해서 아쉬웠는데 며칠 전 보니 아예 사라져 버렸더군요.

배우 엠마 왓슨을 아시세요?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 그리고 ‘미녀와 야수’의 벨 역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책벌레’로도 유명한 왓슨은 지난 6월 지하철 등 여러 공공장소에 책 100권을 숨겨 두는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중고 서적 등을 공공장소에 두고 누구든 가져갈 수도 있도록 하는 북 페어리즈(The Book Fairies·책 요정)와 진행한 기획이었답니다.

당시 ‘보물찾기’에 성공한 인증샷들이 인터넷에 속속 올라오고는 했죠.

지하철·공원에서 보물찾기

취재를 마치고 10개의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지금은 우선 함께 나눌 책을 고르고 있는데 집 책꽂이를 훑어보며 만화책, 여행에세이, 인문서, 소설 등 다양한 책을 담을 작정입니다. 프로젝트 ‘연속성’을 위해 절반은 ‘철가방’ 벤치를 마련했던 것처럼 ‘아는 사람’과 ‘아는 장소’에 놓고 나머

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어딘가’ 두려해요. 무엇보다 큰 감동을 준 ‘페코로스’를 어디로 보낼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엠마 왓슨은 아닙니다만, 우선 오늘 출근길 지하철역에 ‘거시기 봉투’를 두고 왔습니다. 심사숙고해 선택한 책 한 권과 찢막한 손편지도 함께요. 추천한 책을 해 둘 생각입니다. 혹시 어느 날 이 책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온다면 얼마나 재미있고 신기하겠어요.

글을 쓰는 지금, 누군가 책을 가져갔을까? 그 책을 읽고 나처럼 재미를 느꼈을까? 이 사람이 ‘봉투’가 놓여 있을지 책을 담아 누군가에게 전할까? 궁금증이 듭니다.

늘 치킨 광고나 우유 배달 주머니가 붙어 있던 당신의 집 앞에 어쩌면 누군가 보낸 ‘거시기 봉투’가 놓여 있을지 모르니까요.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이나 카페·공원에서든 만날 수도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부담 없이 주머니를 열어 보세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프로젝트 거시기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면 상품도 증정할 겁니다.

‘거시기 프로젝트’와 떠나는 책 여행,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mekim@kwangju.co.kr

社說

5·18 특전사 전투 기록 조작부터 밝혀내야

5·18 당시 유혈 진압에 투입됐던 특전사의 전투상보(戰鬪詳報)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두환 정권이 안기부 주도 아래 ‘80위원회’를 만들어 5·18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것도 모자라 일선 부대의 작전 기록까지 치밀하게 꾸민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영관급 장교 출신인 A씨는 최근 “특전사와 3·7·11공수여단 전투상보를 분석해 본 결과 마치 한 사람이 작성한 듯 판박이였다”고 밝혔다. “타자기가 흔치 않던 시절에 한결같이 수기가 아닌 타자로 작성됐고, 무엇보다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이 빠져 있었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전투상보는 군부대가 작전 종료 후 전투의 흐름과 공과, 유공자 및 공적, 상황도 등을 담아 상급 부대에 올리는 보고서인데 보고된 이후에는 변경이 금지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 과거사유 등에 제출된 공수부대 전투 상보에는 구체적인 작전 상황도

는 물론 유공자 명단과 공적 등이 빠져 있어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A씨의 판단이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제보가 접수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정의평화위원회에서 5·18 진상 규명 활동을 했던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987년쯤 군 병사라고 밝힌 젊은이가 전화를 걸어와 ‘지금 군에서 병사들을 모아 놓고 5·18 작전일지를 다시 작성하고 있다. 조작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투상보는 집단 발표와 헬기 사격 명령 체계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은 5·18 진압에 투입된 군부대의 작전 기록이 전두환·노태우 정권 당시 신군부에 유리하게 변질됐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군과 정보기관 문서의 조작 과정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수십억 원 쓰고도 활로 못 찾는 목포 자유시장

목포시가 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해 8년여 동안 수십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평가는 낙제점이다. 재래시장은 가장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이다. 국내의 유명 관광지를 예로 들 것도 없이 광주만 해도 대인·남광주·송정 야시장이 다양한 콘텐츠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자유시장 활성화 사업은 관광 광역 유치라는 의욕만 있었을 뿐 예산의 무분별한 집행과 차별화된 콘텐츠 부재 등으로 헛돈만 쓴 꼴이 됐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삼학동 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올해까지 28억 2000만 원을 들여 4개 프로젝트를 추진, 인프라 구축 및 관광역 유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2009년부터 3년간 추진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옥상 공연장은 인기가 없어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공연이 열리지 않았으며,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애타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올해 또다시 기존 프로젝트와 별 차이가 없는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 5억 원을 편성기로 해 무책임하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8억 2000만 원(1개 면당 무려 2000만 원)을 투입,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이제라도 전국 유명 야시장의 성공 사례를 참조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애타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은편칼럼

나이 들어 외국어라니



박형순 전남대 명예교수

알렉산더 윌리엄은 50대 후반의 미국인으로 프랑스어를 배우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13개월의 경험을 ‘나이 들어 외국어라니’에 실감나게 풀어놓았다. 그는 프랑스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열정을 훨씬 능가하여 프랑스어 이메일과 대화 사이트에 가입하고 프랑스어만 사용하는 몰입 교육을 받았다.

그는 더 나아가 총스기의 언어학 이론을 공부하고 프랑스어 배우기 전과 후, 자신의 뇌의 활성 부분을 비교하는 뇌과학에까지 접근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던 중, 심장병이 생겨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두 번째 대수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지하게 질문한다. “내

가 죽기 전에 하고 싶던 일이 정말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뿐이었나?”

필자는 4년 가까이 네पाल에 살면서 네पाल어를 배우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학원 수강은 기본이고 단어장을 만들어 외우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외에는 내게 네पाल어를 하라 주문한다. 귀가 열리도록 네पाल어 교재를 스마트 폰에 녹음하여 부엌에서 일할 때, 산책할 때, 운동할 때,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녹음을 들곤 한다.

네पाल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같아서 쉽다. 이렇듯 있는데 오랫동안 공들인 영어가 뻔뻔함을 놓는다. 또 성(남·여, 사물), 수(단수, 복수), 격(존칭, 동격, 하대 등)과 시제(현재, 과거, 미래, 분사, 진행형 등)에 따른 어미 변화들이 어지러워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어미 변화 표를 만들어 정리하고 외워도 각 상황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여 끝말을 알버무리기 일쑤다.

어느 날, 나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테니 네पाल어 수업을 듣게 해달라고 청했다. 교장은 흔쾌히 승낙하고 나를 2학년에 넣어 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네पाल어는 뒷전이고 나는 한국어 교사로 자리매김하여 꽤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었다. 동네 아이들도 나를 ‘선생님, 선생님!’하며 따른다.

이웃집 아이는 2년 전 4월 27일에 태어났다. 내가 남의 아이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그 애가 태어나기 이틀 전에 겪은 진도 8.1의 네पाल 대지진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 아이의 네पाल어가 나보다 유창한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무척이나 한심스러웠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내가 두 살배기보다 네पाल어를 못하는 이유가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모국어인 배우는 유아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10개월의 듣기 훈련을 마친 상태에서 가족이라는 팀, 특히 엄마의 사랑 속에 지속적 몰입 교육을 받는다. 반면에, 나는 수업료로 맺어진 교사와 교과서 문법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씩 네पाल어를 공부한다. 학습에 투입되는 총 시간을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네पाल어보다 시뒀 열악한 상태에서 학습중이다.

저자는 사춘기를 훨씬 넘기고 그의 나이에 시작한 외국어는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음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신

이 원하는 만큼 프랑스어를 익히진 못했어도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졌음을 깨닫고, “늘지 않아도 괜찮아, 후회 따윈 없어”를 책의 부제로 달았다.

나 역시 네पाल어를 배우느라고 투자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직하고 진지하게 질문해야 함을 느낀다. 나는 어디까지 왔으며 언제까지 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도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 부으면서 네पाल어와 씨름할 것인가?

네पाल 숫자는 100까지 제각각이어서 외국어가 무척 어렵지만 나는 이제 숫자를 셀 수 있게 되었고 생존에 필요한 생활 언어는 어느 정도 습득한 것도 같다. 그래도 더 많이 배우고 싶은 것은 쓸데없는 욕심일까?

생의 벼랑 끝에 서 본 저자와 달리 나는 자신에게 온전히 진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설픈 대답을 한다. 네पाल어로 성경을 읽고 네पाल 친구들에게 네पाल어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또 강의 중에 절반쯤은 네पाल어로 쓰고 싶다.

딱히 꼭 하고 싶은 일도 없는데 이런 사명감 비슷한 이유라도 있어서 배움을 계속하면 다행이 아닐까.

기고

1700만 원의 기적



유두석 장성군수

축제 시작 전부터 조짐이 심상찮았다. 개막하기도 전인 추석 연휴 10일 동안 20여만 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개막 이틀째엔 7만8000여 명, 사흘째엔 10만1000여 명이 몰려들었다. 축제를 본 사람들의 입에서 일어로, 또 SNS를 타고 입소문이 퍼졌다. “그 축제, 장난 아니더라.” 장관에 입이 딱 벌어진 관람객들이 며칠 만에 다시 축제장을 찾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입파는 밀물처럼 걷잡을 수 없었다. 일요일인 지난 22일엔 13만 1975명을 찍었다. 군 인구의 세 배 가까운 수치다.

지난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장성 황룡강 일원에서 열리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이하 노란꽃잔치) 애기다. ‘황룡

강변에 펼쳐진 10억 송이 꽃들의 대향연’인 ‘노란꽃잔치’가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 혹자는 ‘기적’이라고 하고, 혹자는 ‘장성군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라고 했다. “장성군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 건 처음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

언론도 연일 ‘노란꽃잔치’를 보도하느라 바쁘다. 왜 안 그러냐. 카메라를 들이대기만 해도 ‘작품’이 나오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모 언론이 ‘평생에 볼 꽃을 여기서 한꺼번에 다 보면 어떨까요?’라고 보도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노란꽃잔치’의 대성공은 축제를 주최한 장성군으로서도 여러모로 감동스러운 경사다. 지난해 이미 히트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여러 부분을 보강하고 개선해 고작 3회째인 축제를 명실상부한 전국 축제로 발돋움시켰다는 점에서 그렇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황룡강에 그렇게 많은 꽃을 심었더니 꽃씨 가격만 수억 원은 들었겠네요?” 내가 말했다. “2000만 원도 안 되는데요?” 묻는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하긴 내 친구들도 믿기지 않

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이야, 유 군수?” 정확히 말하면 꽃씨를 구입하는 데 딱 1700만 원이 들었다.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꽃씨가 20만㎡의 황룡강변을 노란 빛으로 물들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와 군민들이 황룡강에 심은 건 꽃씨가 아니라 ‘기적’인 셈이다.

개인적으로 코골이 시큰해지는 감회가 느껴진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황룡강에서 꽃축제를 열자고 내가 제안했을 때 반대한 사람이 대다수였다. ‘그 넓은 황룡강에서 어떻게 꽃 축제를 여는냐’라는 반발이 잇따랐다. 제주 올레길을 개발한 서명숙 전 시사저널 편집장의 고독한 고뇌를 실감했다. 올레길을 만들 때 ‘누가 걸으려고 제주도까지 비싼 비행기 티켓까지 끊고 오겠냐’라며 반대가 많았기 때문이다.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꽃 전문가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황룡강에 꽃을 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월급이 적은데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거버넌스’의 힘은 위대했다. 장성군과 장성군민들은 황폐한 황룡강을

형형색색 꽃들이 만발한 명품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해 여름, 군민들이 나서 3ha에 이르는 황미르랜드에 해바라기를 직접 심으며 ‘노란꽃잔치’ 준비에 힘을 보탤던 걸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올해 축제가 대박을 터뜨린 것 역시 우리 장성군민에게 웃음이 공을 돌려야 마땅하다. ‘우리가 준비한 축제가 전국 축제가 됐다’라는 몽클한 자부심이 ‘노란꽃잔치’가 대성공을 거둔 이유라고 믿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에서 정년 퇴임해 유유자적한 생활을 누리다 “기름 값이라도 좀 벌여보지 않겠나?”라는 나의 핏에 빠져 ‘노란꽃잔치’ 실무자로 합류한 꽃 전문기도 말한다. “군민들이 없었으면 ‘노란꽃잔치’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암, 어림도 없죠.” 손발이 부르르도록 축제장의 꽃을 돌본 그도 군민들의 열정에 감동했다고 했다.

장성군민의 열정과 자부심이 만들어 낸 명품 축제 ‘노란꽃잔치’가 오는 29일까지 황룡강에서 열린다. 장성군민이 만든 ‘기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無 等 鼓

머칠 전 국내에서 열린 KLPGA 골프 중계방송을 보던 아내가 “나도 김정 바지 하나 사야겠다”고 말했다. 빨간 셔츠가 있는데 어떤 색 바지가 어울릴지 몰라 고민하던 중 1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여자골퍼 서너 명이 빨간 셔츠에 김정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굳힌 것이다. 일종의 ‘검빨 패션’인데, 스포츠에선 검빨 패션이 승리를 보장한다는 미신 같은 믿음이 있다. 역사상 최고의 골퍼인 타이거 우즈는 짙은 빨간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나설 때마다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빨 패션의 원조는 누가 뭐라 해도 해태 타이거즈일 것이다. 타이거즈의 김빨 패션은 상대방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해태 선수들은 1983년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아홉 차례 코리안시리즈에 진출해 전승을 거뒀다. 그것도 무패로 승리하거나 한 번도 7차전까지 가지 않은 완벽한 승리였다.

타이거즈의 코리안시리즈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첫 우승을 차지한 1983년에는 10월12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아웅산 테러가 터져 3일 늦게 열렸다. 삼성과 만난 1986년에는 화난 대구 관중들이 타

‘단군 매치’

오늘부터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코리안시리즈가 막을 올린다. 코리안시리즈에서 호랑이와 곰이 만난 것은 36년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인지라 모두들 ‘단군 매치’라며 떠들썩하다. 1차전 시구자로는 김용흥 감독이 결정됐다. 타이거즈 옷을 입고 아홉 번 코리안시리즈 우승을 안긴 감독이라 조짐이 좋다. 흥행과 함께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7차전까지 가서 지켜야 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렇게 될 경우 가슴 졸이는 준비부터 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우편물 유통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